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제198호

충청북도

# 의회소식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 전화 (043)220-5123 | <http://assem.cb21.net> (2009년 7월)



계진 청풍수경분수

개 회 사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편성 되어야



이 대 원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애국심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유월을 맞이하여 제28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권광택 의원님과 최광옥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시작되어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종 확정되는 날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회기이지만 알찬 회기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김범기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부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충북은 혜택을 커녕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충북이 4대강살리기 사업의 금강분류 유역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 턴키 공사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범위를 충남으로 제한한다면 우리 도 건설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 분류 유역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턴키사업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범위를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로 확대 시행할 것을 충북도민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4대강 사업을 공동 추진하시는 관계 장관님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또한, 도지사님과 중앙정부의 관계관계에서도 우리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조기실현 촉구



오송익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충청북도는 국도의 중심에 있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부권은 통합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남부와 북부권은 지역소외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강원과 대전으로의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지사님께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가 골고루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의 균형발전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타 시·도보다 앞서 지역균형발전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지사님께서도 현정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지역에서 통합문제로 인한 갈등

등과 타 시·도로 편입을 주장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분명히 어떠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는 서로 화합하면서 공동발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이러한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여 지역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괴산군은 '녹색성장 시범 군'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괴산군은 비록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청정 지역이기에 전국 최고의 '녹색성장 시범 군'으로 육성하여 경제기반 확충과 함께 인구유입을 통한 괴산발전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산군은 건강을 테마로 한 녹색성장 농업과 관광 사업들을 균형발전사업계획에 반영시켜 괴산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중부권(진천·음성·괴산·증평) 공업용수 조기 공급을...



장주석 의원  
(행정소방위원회)

진천군을 비롯한 음성·괴산·증평군 등 중부권에는 7개 산업단지와 14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13개 지구 산업단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중부4개군은 경제특별도 건설에 힘입어 새로운 공업지대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유치와 기업유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북도의 공업 기반시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부권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는 현재 1일 14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에는 1일 421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활용수 및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싼 원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421톤으로 소요량을 예측할 때 공업용수보다 1㎥당 100원이 더 비싼(생활용수 339원/㎥, 공업용수 239원/㎥) 생활용수를 사용할 경우 연간 153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싸게 공업용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업이 입주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투자와 기업유치는 자명한 일이나 이를 위해서는 도로와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천군을 비롯한 중부 4개군의 공업발전은 충청북도의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경제특별도 충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부권에 공업용수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155만 도민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1년 1월 421톤으로 소요량을 예측할 때 공업용수보다 1㎥당 100원이 더 비싼(생활용수 339원/㎥, 공업용수 239원/㎥) 생활용수를 사용할 경우 연간 153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싸게 공업용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업이 입주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투자와 기업유치는 자명한 일이나 이를 위해서는 도로와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천군을 비롯한 중부 4개군의 공업발전은 충청북도의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경제특별도 충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부권에 공업용수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155만 도민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청남대 관광 명소화를 위한 국제꽃박람회 추진제안



정은숙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본 의원은 개방 이후 침체 기조에 있는 청남대 관광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남대는 '03년 4월 18일 대대적인 개방 환영행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이관 받아 일방에 개방한 대통령 별장입니다.  
이관 초기 관광객의 대거 방문으로 문의면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되어왔으나, 이후 관람객은 연평균 13.4%, 입장료 수입은 14.3%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액은 연간 소요예산 40여억원에 부족함은 물론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비

롯하여 한번 방문한 관광객의 경우 신비감 상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객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등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되어, 이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태안의 안면도 꽃 박람회의 경우 2002년 행사를 시작한 이래 금년도에는 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청남대는 대형담의 수려한 주변경과 대통령 별장이라는 이미지가 여우러져 세계질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는 곳으로 안면도 꽃 박람회를 벤치마킹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꽃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치 '청남대 국제 꽃 박람회' 추진 검토를 충청북도에 제안드립니다.

## 제2회 추경예산 등 17건의 주요안건 의결



▲ 제281회 임시회 개최

### 제281회(임시회)

충청 북도의회 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제281회 임시회를 열어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에 대한 심의와 안보정세 강연회, 전체의원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전체의원 연찬회 개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지방 살리기 범 국민대회 개최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등 17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충청북도학생문화원, 충북도민안전체험관, 진전농협통합 RPC에 대한 현지 확인과 성립전 예산사용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안)

- 회 기 : 2009. 7. 10(금) ~ 7. 23(목) (14일간)
- 의사일정

일시	부의안건
7월 10일 (금)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회 식</li> <li>● 제1차 본회의</li> <li>1.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9. 7. 10 ~ 7. 23(14일간)</li> <li>2.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li> <li>3.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li> <li>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li> <li>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li> <li>6. 기타 안건 처리</li> </ul>
7월 11일 (토) ~ 7월 22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회의 휴회</li> <li>●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li> <li>-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li> <li>-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li> <li>-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도, 교육청)</li> <li>-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li> </ul>
7월 23일 (목)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본회의</li> <li>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지출승인의 건(도, 교육청)</li> <li>2. 부의안건 처리</li> <li>3. 기타 안건 처리</li> </ul>

###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li> <li>●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지출승인의 건</li> <li>● 주요현안 처리</li> </ul>
행정소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li> <li>●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li> <li>● 기타 현안 처리</li> </ul>
교육사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li> <li>●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승인의 건</li> <li>●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li> </ul>
산업경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지출승인의 건</li> <li>● 충청북도 중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조례안</li> <li>●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li> </ul>
건설문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li> <li>●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승인의 건</li> <li>● 기타 현안 처리</li> </ul>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정재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님께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은 뉴질랜드 방문시 개혁 이전의 뉴질랜드 농업같이 한국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농업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개혁 태스크포스트를 구성 3월 23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우리나라 농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화방안이 무엇인가 고심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선진화방안을 기초로 미래성장동력 분과위원회 등 총 5개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47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선정한 과제는 농어업의 선

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이와 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 세제개선 등을 통해 중소농이 전업농을 거쳐 기업농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은 자칫 현재 농업의 중심체인 가족농의 중소농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우려됩니다.

또한 경제적 논리로 무장한 기업이 농어업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 면 이에 수반되는 각종 환경과피, 중소규모의 농어업인의 몰락 등 문제점도 대두될 우려가 큼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통한 국가기반산업화가 아닌 자본에 의한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농어업 개혁은 식량의 중요성과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 주권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어업보호와 육성정책

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의원 모두는 우리 농어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리며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정부차원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농어업 개혁안에서 탈피하여 농정의 주체인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십시오.

하나, 식량의 중요성과 농어업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어업보호와 육성정책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2009년 6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웅)는 6월 17일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다.

이번 종합심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우수농산물 보급지원, 육품정육유 광역클러스터 사업 등 사업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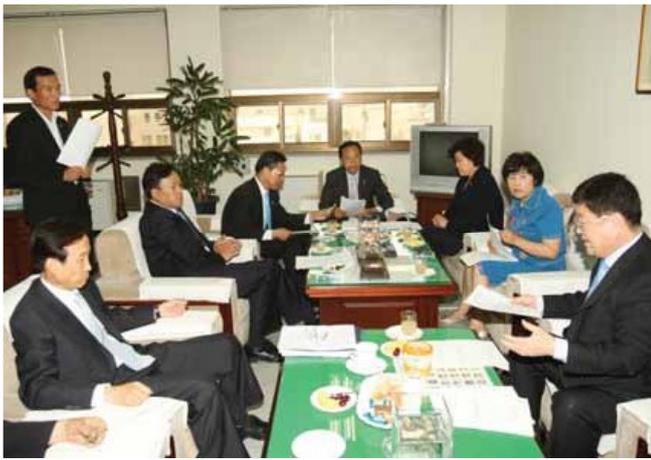
이로써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를 기정예산액 2조 7,987억 3,058만 4천원보다 1,710억 378만 6천원을 증액한 2조 9,697억 3,437만원으로 의결하여 일자리창출 사업, 서민생활안정 사업, 녹색성장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하여 도민생활 안정과 경제회생 및 활력화를 기하게 된다.



▲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선 간담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6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 열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8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이규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학사 운영 소관상임이 변경,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조문의 체계나 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다.

그리고 최광욱 의원 외 7인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도의회 회의운영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

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제282회 정례회 회기는 7월 10일부터 23일 까지 운영기로 하고 10일 제282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상반기 도정 및 교육정책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처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11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으로 '09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도 및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전과 기타 안전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행정소방위원회

안전체험을 통해 재난대응능력 배양해야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흠)는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가장 '충북회관' 건립 추진 현황과 소방공무원 복제개정 내용 및 충북개발공사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한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다.

특히, 6월 16일 도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방문이용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기초 소방상식과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숙지, 연기피난 및 응급처치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으며,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안전체험관을 방문토록 하여 체험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 배양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소방본부 도민안전체험관 방문

교육사회위원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 요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 현)는 제 281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의 성립전 예산사용 보고를 비롯한 2건의 간담회 및 충청북도 학생문화원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6월 11일 열린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대규모의 재원투입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적극적인 사업추

진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하고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편성의 취지를 공감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이종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의료원의 당면직 이사 임명절차 간소화 및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조례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 학생문화원을 방문하여 공연장과 체험학습실 등의 시설들을 돌아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제공으로 꿈을 키우는 교육실현을 주문했다.



▲ 충청북도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한 설명 청취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전개



▲ 농산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는 6월 18일 경기불황과 쌀 소비감소 등으로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천군농협 통합 RPC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통합 RPC의 초저온 냉각시스템 저장시설, 저온저장 싸일로, 저장보관장치 등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쌀 재고량 수급대책과 향후 추곡수매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연중 균일한 미질을 유지하여 충북쌀의 고품질화를 통한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여 시장점유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충청북도 농산사업소를 방문하여 순도 높은 우량원종의 안정적 생산,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보급종 생산·공급, 특성화 품종 육성으로 농가소득원 창출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고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였다.

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위한 청년인턴제 운영,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창출과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총복 쌀 소비대책 등 도내 경제살리기와 농업경쟁력 확보방안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검토·심사하였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등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원안기결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

도립예술단, 도민에게 문화혜택 제공해야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는 제 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한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선진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도립예술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순회공연을 통하여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자연하천형 정화사업 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시 대청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시·군 배치와 체육시설 확충의 균형있는 추진으로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건설문화위원회는 김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위·해촉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신설 내용의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기결 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제천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청취

## 주요처리의안

-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방관서 신설 및 3급대 소방인력 확충을 위하여 소방직 증원
  - 총 정원 조정 : 2,668명 → 2,781명(소방직공무원 증 113명)
-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령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모범이 「특허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 「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변경 등
- ❖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장학금 중복지급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
-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
  - 재산종류 명칭 조정(행정재산·보존재산→행정재산, 잡종재산→일반재산)
- ❖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 ❖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부조리 행위의 정의, 신고방법, 신고자의 보호,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등
- ❖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

- ❖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연직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생략
  - 의료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 ❖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등
-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신설
  -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의 변경 등
- ❖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제민간기구를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함 등
- ❖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구성원, 간사 등 인원의 표기 및 직제개편에 따른 과장 명칭 개정

-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지구 수정
-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등록을 인기초에 하도록 규정된 것을 당선인 결정 후에 하도록 함.
  -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도 본회의에 직접 부처의결할 수 있는 13개 항목 신설 등
- ❖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009년 6월 30일까지인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2009년 9월 30일까지로 함.
-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건의안 : 원안가결
- ❖ 2009년도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 법률상식

##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이혼하게 되면 이혼의 방법을 불문하고,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과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이 문제됩니다. 이하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형성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력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의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금전 지급, 현물 분할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청구와 재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협의 이혼 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협의의 약정은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은 부인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 ❖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

-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의 경우 채무가 일상가사(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됩니다.

가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배우자의 도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연금, 퇴직금 등은 분할대상이 되며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이를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신국희 - 변호사>

### 세무상식

##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발급예약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세청에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사전예약을 통해 편리한 시간에 민원처리는 물론 야간에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상담 또는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유가환급금 신청이 맞물려 세무서 방문상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을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 메뉴에서 방문예정 날짜·시간 및 상담내용을 입력해 신청하면 세무서에서는 예약 내용을 확인해 신청인의 핸드폰과 이메일로 방문일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자동통보해 줍니다.

아울러 정상 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사전예약 한 후 편리한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민원증명 발급예약제도를 실시하며 사전 예약 후에는 정상근무시간 이후인 저녁 9시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야간 당직자가 예약된 증명서를 교부해주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급예약대상민원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증여세공제는 얼마이며, 언제 신고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과세기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조운배 - 세무사>

- 증여세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직계존비속간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 5백만원)
  - 배우자는 6억원
  - 기타의 친족은 5백만원
- 증여세신고는 증여 후 3월 이내에 수증자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건강을위한 건강검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성인병이나 다른 질병들을 미리 진단하고 관리한다면 무병장수라는 희망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암의 조기발견과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건강검진 받는 것을 망설이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족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의 방법을 알아보자.

**❖ 연령별 꼭 받아야 할 건강검진**  
연령대별 꼭 받아야 할 건강검진이라도 나이, 가족력, 과거 병력 등을 고

려한 자신만의 맞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의사의 진찰과 문진을 통해 건강위험 요인을 알아본 후 개인 건강검진 목록을 작성하여 적절한 검진항목과 검사 시기를 정한 후 시행에 옮기도록 한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확인된 후에는 철저한 건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어떤 특정 질환이 조기에 발견되었다면 치료를 병행하고, 추적검사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해야 한다.

**❖ 10대, 건강에 관심을 가져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사춘기이므로 조기 진단을 통해 신체적 문제의 조기 검진과 치료, 그리고 전반적인 심리적 문제 등을 진단한다. B형 간염 접종 등 건강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예방접

종을 받고,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통한 비만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어릴 때 건강에 대한 자기관리는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

**❖ 20~30대, 술과 담배를 끊어라**  
사회생활이 왕성해지면서 스트레스, 폭음, 흡연 등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이자 건강에 자만하기 쉬운 시기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각종 성인병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는 매년, 유방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35세 이상은 간기능 검사 및 간초음파검사 그리고 위내시경/투시 검사는 매년 꼭 빼놓지 말아야 한다.

**❖ 40대, 적당한 운동을 하라**  
40대 이상이라면 건강진단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심장병, 각종 암, 중풍, 만성 폐질환, 간 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이므로

정기 건강검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심장 질환 검사도 챙겨야 하며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와 유방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매년 유방검사를 해야 한다. 성인병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3일 이상 운동은 필수적이다.

**❖ 50대 이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작하라**

50대 남성에서 뇌혈관계 질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직장암, 대장암 발생도 많아지므로 대장내시경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50세 전후로 폐경기를 맞은 여성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 등 퇴행성 질환과 각종 성인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이 높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 窓邊客談 창변객담

###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도리깨”

식량 소비성향의 변화, 경작효율성의 감소 등으로 보리농사, 밀농사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농업의 소득 증대로 경제수준을 끌어올린 덕에, 우리의 허리춤을 졸라매고 있던 보릿고개가 사라진 건 다행인데, 논밭밭에서 풀래 그슬려 먹던 하곡겉의 아슬아슬한 밀때기 즐거움까지 사라진 건 아쉬운 일이다.

‘털썩, 털썩’, 절구통을 누어놓고 보릿단을 메치는 타작모습도 사라지고 ‘툭탁, 툭탁’, 보릿짚 북데기 이삭에 몇 날씩 남은 낱알까지 알뜰히 털어내는 도리깨질도 보기 어려운 풍경이 되었다. 그나마 짓는 밀·보리농사도 영농의 기계화로 알곡을 터는 타작에서부터 까라기와 검불을 가려내는 풍구질을 거쳐 부대에 담아내는 일까지 일괄 작업으로 해내기 때문이다.

드문 풍경이 되었지만 도리깨는 밀·보리타작 때만 아니라 콩·팥이나 녹

두·깨 타작 때도 쓰는 기구여서 산촌에 가면 아직도 도리깨질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다행이다.

도리깨는 자루에 해당하는 장부(총칭지방은 ‘장치’) 끝에 구멍을 뚫어 꼭지와 휘추리(도리깨 날개)를 끼워 돌도록 만든 기구다.

사람 키의 한배 반쯤 되는 장부를 두 손으로 잡고 어깨너머로 돌리면 휘추리가 큰 원을 그리면서 가속을 받아, 곡식 싹을 두드려 낱알을 털어낸다. 원시적이랄 수 있지만 회전력과 가속도, 낙차(위치에너지)를 이용한 과학적 원리를 심분 응용한 기구다.

휘추리는 꼭지부분을 한 데 묶었으나 끝은 두 갈래에서 네 갈래까지 나란히 펼쳐서 두드리는 면적을 넓게 만들었다. 작업의 효율성도 충분히 감안된 것이다. 장부는 대나무나 소나무, 낙엽송 등 흔한 것을 쓰지만 휘추리는 재질이 단단하고 곧은 박달나무나 물푸레나무를 주로 쓴다.

이런 도리깨를 휘둘러 낱알을 터는 탈곡작업은 일종의 중노동이다. 숙련이 안 된 사람이 잘못 휘두르다가는 회전하던 휘추리가 제 몸을 때릴 위험이 있는 만큼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

다. 기술은 제 몸 안전에 그치지 않는다. 도리깨 휘두르는 방향을 조절하여 타작하는 곡식 싹을 한 곳으로 모아놓거나 넓게 펼치는 건 물론 뒤집기도 하고 걸어내기도 한다.

타작마당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혼자서 도리깨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둘 이상의 다수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혼자거나 여럿이거나, 인원에 관계없이 작업의 장단은 2박자로 통일된다. 혼자서 할 경우도 2박자 장단이 흐트러지면 작업 능률이 떨어지지만 둘 이상의 다수 인원이 공동작업을 할 때도 2박자에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작업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호흡이 잘 맞는 도리깨질 모습을 보면 집단 기구체조나 현란한 율동을 감상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한 자락 무예를 보는 듯도 하다. 거기에 ‘어여라 옛 차, 어여라 옛 차’ 하는 입장단까지 넣으면 보고 듣는 이의 덩실춤이 절로 나올 만큼 흥이 솟는다.

우리 조상전래의 덩실춤이 모두 2박자에 맞춰지고 있는 건 전혀 우연이 아니다. 노동동작과 춤동작의 일원화를 꾀하고, 그 동작을 가장 단순하고 반복 리듬이 빠른 2박자에 조화시킴으로써

흥을 돋우고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 온 것이다.

도리깨질은 비록 제한된 장소에서 단 순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이지만, 전신의 관절과 근육을 고루 동원,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여야 한다. 조화가 깨지면 신체 어느 한 부분에, 소위 담이 걸린다는 근육통을 일으키게 된다. 때문에 도리깨는 기구 자체가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제작되기도 했지만, 작업과정에서도 신체의 역학기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 원리를 이용한 기능 확대, 신체 역학에 의한 체력의 효율성 제고, 동작의 리듬화로 심리적 피로의 경감. 이로 보면 도리깨질 하나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무진장한 셈이다.

커가는 우리 아이들은 도리깨가 무언지를 모른다. 그 힘겨운 노동을 감내한 인내도 모른다. 거기 스며있는 조상들의 지혜는 더욱 모른다.

조상의 손때 묻은 것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기능이 향상되고 사용이 편리한 기구로 대체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조차 그냥 잊혀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安秀吉 - 소설가>

행정소방위원회



◀ 연만흠 의원 (중평 제2선거구)

6월 19일 중평군청에서 열린 2009 중평군통합 방위협의회에 참석



◀ 강태일 의원 (한나라당)

6월 13일~14일 청주시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제14회 청주시 생활체육대회에 참석



◀ 김환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6월 14일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괴산군축구연합회와 광진구 화양동 축구클럽간 친선교류축구대회에 참석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6월 7일 청주시 충북곰두리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본말대회에 참석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6월 21일 무극중학교에서 열린 제21회 금왕읍민 화합체육대회에 참석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6월 19일 진천테마공원에서 열린 제8회 교육감기 4·5·6·7학년별 동아리 축구대회 겸 제4회 설암 김천호배 축구대회에 참석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6월 3일 영동군 추풍령에서 열린 추풍령 보건지소 준공식에 참석



교육사회위원회



◀ 최재욱 의원 (중평 제1선거구)

6월 25일 중평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6.25 전쟁 5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6월 23일 영동군에서 열린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준공식에 참석



◀ 최미에 의원 (민주당)

6월 2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인권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



◀ 김광수 의원 (청주 제1선거구)

6월 3일 동양일보 주관으로 열린 청주공항공황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6월 19일 단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회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 이중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6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박원과 의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6월 15일 ~ 18일 청원군 소재 충청대학교에서 차세대 여성CEO 육성강좌에 참석



◀ 최광욱 의원 (한나라당)

6월 24일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서 열린 금슬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산업경제위원회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6월 16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사업 설명회'에 참석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6월 18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 참석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6월 25일 제천문화회관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 박영용 의원 (옥천 제2선거구)

6월 26일 옥천군 119안전센터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연합회 월례회의에 참석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6월 13일 진천군 화랑관에서 열린 인접지역 3도 3시·군(진천군, 천안시, 안성시)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 심홍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6월 6일 충주체육관에서 열린 송암배 전국 탁견한마당 대회에 참석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6월 24일 보은군 일원에서 열린 균형발전 현장투어 행사에 참석



건설문화위원회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6월 22일 남이면에서 열린 순환버스 시승식과 30일 미일면 급관에서 열린 새마을 한마음대회에 참석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6월 29일 충주문화방송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사업 충주 MBC집중토론회에 참석



◀ 김경기 의원 (충주 제3선거구)

6월 29일 충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화합 실천을 다짐하는 충청북도 노사평화 선언대회에 참석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6월 19일 단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회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보은군 선수단 인솔



◀ 김하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6월 19일 단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회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주관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6월 12일 괴산군 청천면 사기마리(도·농 교류회관)에서 열린 녹색농촌체험 마을 준공식에 참석



◀ 이기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6월 14일 옥천군 옥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옥천군 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6월 26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 시·군 순회도민대토론회에 참석